

봉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교육 자료 수강 보고서 작성 가이드

1. 봉사활동 개요

가. 봉사활동 내용

: 봉사 전문 영역에서 봉사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전문인의 강연을 듣고 수강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야별 봉사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점을 찾아 실천함

나. 봉사활동 방법 및 인정 시간

- 분반별 사이버캠퍼스에 게재된 4편의 영상 중 1편을 선택하여 수강한 후, 감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1편 2시간 인정(최대 2시간 인정, 2편 이상 작성 불가)

다. 결과물/결과 보고서 제출: 7. 7.(수) 17:00까지

- 1) 결과보고서 작성(inSTAR) ※ 별도 사진 첨부 없음
- 2) 결과물(감상 보고서) 제출
 - 영상 수강처 및 감상 보고서 제출처: 분반별 사이버캠퍼스
 - 제출 양식: 아래 페이지 참조
 - 작성 기준
 - 1페이지 이상
 - 글꼴 함초롬바탕, 글씨 크기 10~11, 줄 간격 160%, 1,300자 이상(공백 포함)

2. 영상 목록: 분반별 사이버캠퍼스에서 수강

순	분야	강연자	주제	소요시간
1	대한적십지사 전북지부	최경용 팀장	Red Cross가 이어주는 마음 크로스_ 적십자의 이해와 봉사활동	34~35분
2	전주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	우리도 언젠간 늙겠죠?_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분야별 봉사	
3	전주샛별야간학교	조선웅 교장	배움에는 밤낮이 없어요!_ 야간학교의 이해와 봉사활동	
4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정원석 부장	함께 나눈 사랑! 함께 누릴 행복!_ 자원봉사의 역할과 자세	

3. 감상문 양식(아래)

영상 감상 보고서

학과		학번	
학년		이름	
영상 제목	나눔의 법칙		
소감문	1.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철가방 故 김우주 씨와 지하철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은 남궁정부 씨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누는 사람과 나누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나누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아직은 나눌 게 없어요”, “나중에 더 별면 나누려 고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앞에 소개한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꼭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꼭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2. 나누는 사람이 성공한다. 미국의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3가지 분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첫째, 기버(Giver): 남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 둘째, 테이커(Taker): 남에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 셋째, 매처(Matcher): 남이 뭔가를 해 줄 때에만 자신도 보답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기술자 160명 대상의 연구의 결과는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인 부류는 기버(Giver)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타적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에 밀려 도태된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을 향해 올라서는 부류는 기버(Giver)이고 그 이유는 지속된 시간 속에서 쌓아온 사회의 인정이라 는 것이다. 자신보다는 타인과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버(Giver)의 선택은 믿음과 지지를 가져온다고 한다. 단기간 경쟁에서는 패자였던 기버(Giver)가 장시간 경쟁에서는 승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예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가난 속에서 자라야 했던 배정철 대표는 나눔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눔은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나눔을 불평등을 극복하는 힘이다.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게으름, 잘못된 습관, 노력의 부족으로 인 하여 가난이 온다고 쉽게 이야기한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물 부족의 시달리고 있고 더러는 더러운 물까지 마셔야 하는 현실에서 그로 인한 잔혹한 결과는 참혹하다. 오염된 물을 마시다 죽는 어린이는 게으른 것인가? 질병으로 들끓는 아프리카에서 45초마다 어린 이 한 명이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한 1억 6천 명의 전 세계 어린이 노동자들은 낮은 급여에 하루 14시간에 이르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들은 노력은 부족한 것일까? 이 상황을 본다면 ‘예’라고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극빈층을 살펴보았을 때 아프리카 국가 수치는 54%,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은 단 1%라고 한다.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